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성 명	장혜경 김소영
출장기간	2015.7.29.~8.3 (4박 6일)		출장지	독일(베를린, 뮌헨)		
출장목적	-독일의 통일 및 여성가족정책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집담회 개최 -독일 통일 관련 세미나 참석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Ruhr-Universität Bochum)		Prof. Dr. Ilse Lenz		- 독일통일 직후 사회적 배경과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가족 이슈 - 독일통일이후 여성가족정책의 전개과정 및 평가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Nicole Herzog Anne Domnick (해당부처 공무원)		- 독일통일이후 여성가족정책 변화흐름과 현황 - 소장자료 요청		
독일청소년연구소 (Deutsches Jugendinstitut e.V.)		Dr. Karin Jurczyk (가족 및 가족정책 파트장)		- 통일과정에서 여성가족이슈 및 사회통합에서의 역할 - 관련 연구 소개		
막스플랑크 사회법연구소 (Max Plank Institute for Social Law and Social Policy)		Dr. Eva Maria Hohnerlein		- 독일통일 전후 여성가족정책관련법의 격차와 사회통합에서의 역할		
한스자이델재단 (Hans Seidel Stiftung)		-		- ‘프란츠 요셉슈트라우스의 외교정책과 독일통일에서의 의미’ 세미나 참석		

2015. 8. 17.

출 장 복 명 자 : 장혜경
김소영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

보고자 : 장혜경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소영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연구위원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통독사례를 통해 통일 전후 사회에서 여성가족의 이슈, 통독의 여성가족정책 전개 과정,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과 주요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학계,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면담/집담회 운영 및 독일통일 관련 세미나에 참여함. 이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주요 조사 내용

-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정책적 배경과 주요 이슈
- 통독의 사회통합 과정과 여성가족 관련 정책의 역할
- 통일 이후 여성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이슈

2. 출장 일정

일시		내용
7.29(수)	12:15	인천 → 베를린 이동 12:15 인천공항(ICN) 출발 19:45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TXL) 도착
7.30(목)	10:30~12:00	보쿰대학교 Prof. Dr. Ilse Lenz와 전문가면담
	14:00~16:00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방문 및 공무원 집담회
	베를린→뮌헨	베를린 → 뮌헨 이동 18:40 베를린 테겔공항(TXL) 출발 19:45 뮌헨공항(MUC) 도착
7.31(금) ¹⁾	10:30~12:00	독일청소년연구소 방문 및 가족정책 파트장 Dr. Karin Jurczyk 면담
	13:30~15:00	막스플랑크 사회법연구소 방문 및 Dr. Eva Maria Hohnerlein 면담
	17:00~21:00	한스자이델재단 세미나 참석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의 외교정책과 독일통일에서의 의미(Die Außenpolitik von Franz Josef Strauß und ihre Bedeutung für die Wiedervereinigung Rückblick und Resümee) ○ Ebersbach, Andreas 외 22명
8.1(토)	09:00~18:00	독일 뮌헨공항(MUC) 출발
8.2(일)	09:00~13:00	
	16:05	독일 뮌헨공항(MUC) 출발
8.3(월)	09:25	인천공항(ICN) 도착

1) 당초 한스자이델재단 관계자와의 집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었으나(해외출장계획안 참조)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으로 계획을 수정해 진행함. 면담한 학자들은 독일통일 관련 여성가족 이슈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여성가족관련 주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

II. 출장 결과

1. 전문가 면담 및 집담회 내용

□ Prof. Dr. Ilse Lenz 면담

○ 독일통일 직후 사회적 배경과 여성가족 이슈

- 동서독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정치적 상황, 정치체제 그리고 다른 젠더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 특히 여성의 유급노동 측면에서 서독은 보수적인 사회였음. 반면 동독은 여성의 유급노동이 50퍼센트 이상이었으며, (보육)시설에서 대부분 아동돌봄을 제공해주었고 여성의 직업교육도 발달했음. 동독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갖고 난 후 어머니의 역할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음. 문제는 통일이후에 이것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임. 특히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음.
- 통일 이후에 젠더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함. 예를 들면 동독의 경우 3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했으나 서독은 그렇지 않았음. 여성의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망하는 젠더 정책이 매우 필요했음. 이것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법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함. 독일 통일에서 정책적으로 젠더 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젠더 평등에 대한 법적 노력이 주요 목적이 되었음.

○ 독일통일 이후 여성가족정책 평가, 사회통합과정에서 여성가족이슈의 역할

- 여전히 지역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이 다른 양상을 보임.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단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동서독의 참여율에 있어 차이가 큰데, 특히 1-3세 보육률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서독은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독일의 사회통합은 잠재력 발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독일 사회통합에서 중요함.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고 증가시켰음. 또한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젠더교육, 평등가치 지지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함.

□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공무원 집담회

○ 동독과 서독 그리고 통일 이후 정책의 흐름

- 동독과 서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함께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임.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어(흡수통일) 통일 되었는데 기본법상으로도 동독이 서독으로 들어 오게 된 것임. 다른 부분들, 즉 국제법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는 양 독일이 동일하게 있었음. 동독도 1979년 UN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도 동독이 국제법상으로도 다른 위치에 있던 것은 아니었음

○ 통일 이후 여성가족 관련 이슈 및 정책의 전개과정

- 독일의 경우는 통일 이후에 젠더 이슈가 일상생활 문제에 많이 집중되었음.
- 통일 이후 여성운동에서도 동독과 서독이 차이를 보임. 서독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동독의 경우는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통일이전 양 독일의 여성상황에 대한 측면을 통일이후 긍정적 부분에 대한 상호 보완의 측면을 보이고 있음.
- 통일 이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여성의 지위, 법적 권한, 남녀가 경제활동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주제였으며 이 밖에 아동돌봄에 관한 이슈도 활발하게 논의되었음. 통일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아동돌봄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남녀의 평등한 지위에 있어서 통일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서독에게 평등, 여성권한의 향상, 여성경제참여를 독려하게 되었음. 지금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집중하는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임. 여성의 삶의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에 주목함.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여성이 집에서 머무르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성은 가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성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일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2011년 평등정책 전문가위원회가 조직되었음

□ 독일청소년연구소 Dr. Karin Jurczyk 면담

○ 통일과정에서 여성가족이슈, 사회통합에서의 역할

- 1989년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한이 있다고 공표했지만 통일 이전 여성의 권한은 동독과 서독이 차이가 있었음. 서독에서 여성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음. 물론 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 되어 있었음. 세계 2차 대전과 그 이후 한동안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을 여성이 대신하여 많은 일을 했으나 60-70년대에 들어서 서독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있게 되면서 이후 서독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못했음.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남성의 사회보험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여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여성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하는 경향이 강했음. 하지만 70-90년대 들어 여성에 대한 상이 변화하면서 여성도 일을 하고 가정생활과 양립하

는 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상이 되기 시작함. 그러나 여전히 남녀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이 가사일과 돌봄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음. 그리고 여성이 육아와 가사일 등 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제 일을 지원하기 시작했음

- 통일 당시 서독은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동독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일을 했었음. 이로 인해 상이한 시민사회에서 여성단체들은 각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한 과정에서 NGO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서로 적응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 팀들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시민사회에서 긍정적인 통합 결과가 나타났음

□ 막스플랑크 사회법연구소 Dr. Eva Maria Hohnerlein 면담

○ 독일통일 전후 여성가족정책관련법의 격차와 사회통합에서의 역할

-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칙상으로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서독에서는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역할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동독에서는 일가족양립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돌봄을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한 것과 대비됨. 동독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한부모가족 또한 서독보다 사회적으로 보장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전까지 지속되어왔음
- 여성이 가족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의존하지 않는 부분은 동독이 모델이 되어서 입법적인 요소에 반영되었음. 국가가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한을 갖도록 독립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현실화 시킴 (예: 여성이 이혼하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2. 한스자이델재단 세미나 참석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의 외교정책과 독일통일에서의 의미(Die Außenpolitik von Franz Josef Strauß und ihre Bedeutung für die Wiedervereinigung Rückblick und Resümee)
-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통일 과정 중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기독교 정당의 재단으로 현재 정치교육, 정책조언,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 등 세계 60여 국가에서 9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세미나의 주요 내용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는 1953년~1969년 연방정부 장관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함. 1978년~1988년 바이에른 주지사를 역임하였으며, 바이에른 주의 경제 발전에 주력함.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음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는 동독의 경제위기로 인한 동독과 서독의 긴장 구조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980년대 초반 동독이 외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동독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고, 생필품 등 동독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음. 지원 조건으로 서독인의 동독 지역 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동독과 서독 지역 경계선에 설치된 자동발사 장치를 제거하는 등 서독과 동독의 교류, 긴장완화 등의 조건을 협상하였음. 바이에른 주지사로서 동서독 교류를 위한 역할에 대한 그의 업적은 역사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교과서에 반영)

3. 수집 자료

- 2nd Gender Equality Atlas for Germany(201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Die Neue Frauenbewegung in Deutschland (2008, Dr. Ilse Lenz)
- Entgrenzte Arbeit – entgrenzte Familie (2009, Dr.Karin Jurczyk etal.)
-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2013, Edited by Anne Lise Ellingsaeter etal.)